

“소상공인·중기 맞춤 정책 발굴...포용금융 토대 단단히”

취임 1년 맞은 고병일 광주은행장, 새해 첫 현장간담회

골목상권 자영업자·가맹점주·MZ세대 창업가 등과 상생 논의 금융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지방은행 유일 수상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포용금융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 하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고병일 광주은행은 은행장이 새해 첫 행보로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밀착경영 및 상생경영 실천에 나섰다.

4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고 은행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지역상생경영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이란 새해 목표를 제시했고, 이날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표해 골목상권 자영업자, 지역 내 가맹점주, MZ세대 청년 창업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전문 멘토링을 통해 경영 방향성을 제시해준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및 보완해야 할 정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광주 첨단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코로나 사태에 이어 고금리까지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됐다”며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계획 및 이자 감면 프로그램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고 은행장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대출 기한을 연장할 시 최대 1%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주는 금융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과 고금리(7% 이상)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운영한 바 있다”며 “올해에도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해당 프로그램들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지난해까지 상생카드 덕분에 실질적 매출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올해는 지역화폐 예산 축소로 고민이다”며 광주카드만의 다양한 혜택 및 프로모션을 요청했다. 이에 고 은행장은 지역 브랜드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 추진, 전통시장에서 광주카드 결제 시 캐시백을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과 상생결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은행은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동반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매년 10억원씩 총 50억원을 특별출연했고, 지난해에는 광주시, 광주 동·서·남·북구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12억 5000만원을 별도 출연하는 등 5년새 총 749억원의 신규 특별보증대출을 공급했다. 또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지만 이



4일 광주시 동구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 등 임직원과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를 실행할 자금이나 담보력이 부족했던 지역 내 청년창업가들을 위해 지난해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했던 청년창업특례보증대출 저금리 금융지원에 동참해, 지원금 295억원 중 101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광주은행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지역 경제 잠식에 맞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는 광주시에 가맹 분사를 둔 지역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을 위한 ‘광주형 프랜차이즈 상생 특례보증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이처럼 광주은행은 평소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중저민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에 1968년 광주은행 창립 당시 본점이 들어섰던 터에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를 개점했다.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신용관리서비스(CMS)를 통해 2금융권과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소상공인들을 1금융권으로 포용하기 위한 종합상담센터 역할을 맡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 같은 지역 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포용금융 경영컨설팅 지원 부문 우수상’을, 지난 2022년에는 ‘포용금융 중소기업 지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에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장윤영 기자 zzyang@kwangju.co.kr

기아 오토랜드 광주 역대 최대 생산 54만1100대

지난해 내수 18만7968대 등 스포티지 20만5230대 ‘최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지난해 역대 최대 생산량을 달성했다.

4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 따르면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해 내수 18만7968대, 수출 35만3132대 등 총 54만1100대를 생산하며, 공장 설립 이후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다.

이전 오토랜드 광주 최대 생산량은 2014년 기록했던 53만8896대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50만대 생산은 2014년, 2015년(53만3483만대) 이후 세번째다.

광주공장이 생산하는 스포티지, 셀토스, 봉고의 국내의 판매 호조는 최대 생산량 경신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지난해 기아 오토랜드 광주 생산량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스포티지가 20만5230대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셀토스 16만4973대, 봉고트럭(EV포함) 10만1430대, 쏘울(EV포함) 6만5627대, 기타(군수버스) 3840대였다.

2023년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대표 차종이자 글로벌 베스트셀링카인 스포티지의 누적생산이 300만대를 돌파한 해이기도 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국내 기아 공장 중 스포티지를 생산하는 유일한 곳으로, 지난 2004년 8월 생



기아 오토랜드 광주 1공장에서 생산 중인 셀토스.

(기아 오토랜드 제공)

산을 2세대 스포티지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스포티지는 다양한 국내의 차량 브랜드 가운데서도 가장 경쟁력있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혁신적인 디자인, 높은 품질 수준과 성능으로 출시 이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23년 10월, 300만대를 돌파한 스포티지는 작년 12월까지 총 304만9892대를 생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오토랜드 광주 관계자는 “지난해 고객들의 사랑과 임직원들의 노고가 합쳐진 결과 역대 연간 최대 생산 기록을 다시 쓸 수 있었다”며 “2024년은 지난해 최대생산량 밑거름 삼아 더욱 성장해 생산과 품질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상의, 중기 ESG 경영 확산 ‘견인’

ESG 정보격차 해소·진단·컨설팅 지원 등 추진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지난해 광주시 지원을 받아 추진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ESG 경영 확산과 인식개선 효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4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상의는 지역 내 ESG 경영 도입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ESG 설명회, ESG 경영 정보 제공 메일링 서비스 제공, 기업 ESG 경영지원 협의회 개최, ESG 진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했다.

ESG 설명회는 지역기업 임직원 대상 국내외 ESG 주요 이슈와 업계 대응 방안, 탄소중립 시대 국내기업의 생존전략, 글로벌 공급망 ESG 관리 등을 주제로 3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또 대한상의와 협력해 ESG 뉴스레터, ESG 온라인 콘텐츠, ESG 경제지표 등을 메일링 서비스로 총 12회 제공, ESG 정보격차 해소와 기초 역량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은행, (주)해양에너지 등 업종별 대표기업 임직원과 학계, 유관기관, 지자체 관계

자로 구성된 기업 ESG 경영지원 협의회를 운영해 국내외 ESG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기업의 ESG 도입 방안도 논의했다.

또 ESG 경영 도입을 희망하는 지역기업 15곳에 ESG 각 항목별 평가 등급과 현황에 대해 파악하는 ESG 경영·공급망 진단을 시행하였으며, 이중 7곳을 대상으로 ESG 경영진단에서도 출현 미흡·개선 사항에 대한 맞춤형 ESG 컨설팅을 시행하고 이행사항 확인 결과, 최종 3개사가 ESG-4 등급 이상의 ESG 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ESG 지원 사업으로 지역 내 ESG 인식을 개선하고 ESG 규정에 어려움을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ESG 경영 확산의 초석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ESG 확산과 지역기업의 ESG 실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기·소상공인에 8조7천억 정책자금 공급

중기부 “유망 기업 혁신성장 중점 지원...금융안전망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약 8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약 5조원과 소상공인 3조 7000억원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대상 지원 자금은 1조7958억원이다.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에는 올해 3000억원이다.

또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2000억원이 공급된다.

성장기 중소기업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174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1000억원의 수출 10만 달러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에 지원되며,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280억원을 지원한다.

또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중점하여 직접 융자로 1조4587억원을,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663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5318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작년 대비 23.7% 증가한 3조7100억원이 공급된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1조1100억원 지원된다. 이 자금은 작

년에는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으나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1조8000억원 수준이다.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7% 이상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4500억원 공급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칭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자금은 8000억원 공급된다.

혁신성을 인정받거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2600억원 배정된다.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각각 중진공 누리집과 소상공인 누리집을 통해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대화면 ‘갤럭시 A25 5G’ 출시

야외에서도 밝은 화면 제공

삼성전자는 5일부터 ‘갤럭시 A25 5G(Galaxy A25 5G)’ (사진)를 국내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갤럭시 A25 5G는 164.2mm(6.5형)의 대화면 슈퍼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한다. 최대 1000니트(nit) 밝기를 지원해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도 밝은 화면을 제공하며, 블루라이트를 줄여주는 시력 보호 기능(Eye Comfort Shield)을 지원해 눈의 피로를 최소화 해준다.

후면 카메라는 50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를 비롯해, 8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200만 화소의 접사 카메라 등 총 3개가 탑재됐다. 전면 카메라는 1300만 화소이다.

특히 후면 카메라는 OIS(광학식 손떨림 방지)와 VDIS(동영상 손떨림 보정) 기능을 탑재했다. 흔들림이나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갤럭시 A25 5G는 최대 25W의 유선 충전을 지원하며,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 스토리지는 128GB를 탑재했으며, 최대 1TB의 마이크로 SD 카드를 추가할 수 있다.

색상은 옐로우, 라이트 블루, 블루 블랙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LTE와 5G 네트워크를 모두 지원하며, 국내이동통신 3사와 자급제 모델로 모



두 출시된다. 가격은 44만 9900원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87.02(-20.29)
↓ 코스닥	866.25(-5.32)
↓ 금리(국고채 3년)	3.250(-0.028)
↑ 환율(USD)	1310.00(+5.20)